

 <b>국토교통부</b>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<b>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</b> 
	<b>배포일시</b>	2017. 12. 04(월) 총 1매(본문1)	
<b>담당 부서</b>	국토부 철도정책과	<b>담당자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박일하, 서기관 오수영</li> <li>• ☎ (044) 201-3938, 3940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## “코레일-SR 통합 vs 독자생존...이르면 내년 1월 운곽” 보도 관련

- 철도공사-에스알(SR) 통합여부에 대해 내년 1월 운곽을 발표하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-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용역이 발주된 바 없으며, 현재의 철도 시스템이 합리적인지, 어떠한 시스템이 국민에게 이익이 있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·추진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내용 (12.04, 뉴스1) >

◆ 코레일-SR 통합 vs 독자생존...이르면 내년 1월 운곽

- 국토부가 SRT 운영성과 용역을 실시하며, 내년 1월중 결과를 받아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와의 통합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오수영 서기관(☎ 044-201-39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